DBpia

「壬申誓記石」의 제작 시기와 신라 중고기의 儒學 이해에 대한 재검토

Time of Creation of the 「Imshin Seogi-seok (壬申誓記石, Stone of Oath carved in the Imshin-year)」 inscription, and Confucianism in the Shilla dynasty's Middle-Ancient era

저자 (Authors)

윤경진
Yoon, Kyeong-jin

출처 (Source)

목간과문자 22, 2019.6, 221-250 (30 pages)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22, 2019.6, 221-250 (3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목간학회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49622

APA Style

윤경진 (2019). 「壬申誓記石」의 제작 시기와 신라 중고기의 儒學 이해에 대한 재검토. 목간과문자, 22, 221-25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3:5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壬申誓記石」의 제작 시기와 신라 중고기의 儒學 이해에 대한 재검토

윤경진*

Ⅰ.머리말
Ⅱ.「壬申誓記石」의 제작 시기 검토
Ⅲ. 신라 중고기 儒學 이해의 실상
Ⅳ.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儒學 경전의 학습을 맹서한 내용이 담긴 「壬申誓記石」의 제작 시기를 새롭게 비정하고, 이를 토대로 신라 중고기의 유학 이해를 재검토한 것이다.

이 碑는 그동안 花郎의 활약기에 세워졌을 것이라는 이해에 따라 552년, 또는 612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비문에서 화랑과 관련된 단서는 찾을 수 없다. 반면 "만약 국가가 不安하거나 大亂이 있으면"이라는 구문은 이 비가 체제 안정기에 건립되었음을 보여준다. 무열왕 때 문장가로 활동한 强首가 학습한 경전은 문장 교재인 『文選』이나 기초 교양인 『孝經』 등이었다. 五經을 비롯한 경전의 본격적인 학습은 원성왕대 讀書三品科 시행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신라의 초기 유학 이해는 漢文學에 부수된 것이었다. 승려들은 중국에 유학하며 문장을 공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학 지식도 습득하였다. 그러나 이는 세련된 문장을 위한 것일 뿐이며, 경전 학습이나 사상적 이해를 보증하지 않는다. 「眞興王巡狩碑」 등에 보이는 경전 구문은 문장을 통한 국왕의 권위 포장에 본령이 있다. 그리고 열전에 보이는 유학적 내용은 후대에 傳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공된 것이 많다. 『老子』와 『書經』을 인용한 金后稷의 사례는 중국의 사적을 차용한 것이다.

▶ **핵심어: 壬申誓記石, 儒學, 强首, 五經, 文選, 讀書三品科, 金后稷**

*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I. 머리말

儒學[1]은 한국사를 이해하는 화두의 하나이다. 중국에서 들어온 유학은 체제 정비와 정치 이념의 토대를 제공하였고, 사회 윤리로 확장되어 나갔다. 현재까지도 사회 일반의 인식 체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역사학 부문에서 儒學史는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었고, 일찍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삼국은 모두 유학을 수용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신라 또한 체제 정비 과정에서 유학을 수용하였고, 신문왕 때에는 유학 경전을 교육하는 國學을 설치하였다. 국학의 설립은 유학 이해와 활용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2] 그런데 그 이전 시기의 유학 이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서 논란의 소지가 발견된다.

근래 연구에서는 「진흥왕순수비」가 건립되는 6세기 중엽부터 신라의 유학 이해가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유학 경전의 유입과 활용을 유추할 수 있는 몇몇 단서를 통해 유도되었다.[3] 「진흥왕순수비」에 유학 경전의 구문이 등장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이다.

신라의 유학 이해를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된 것은 「壬申誓記石」이다.[4] 이 비는 청년으로 짐작되는 두 사람이 壬申年에 하늘에 忠道를 맹서하고 그 前年인 辛未年에 詩·尙書·禮 등 유학 경전의 학습을 다짐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전의 명칭과 학습은 당시 사회에 유학 이해가 상당히

1) 儒學과 儒敎는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유학은 '학문'의 범주에 속하고 유교는 이로부터 이념과 윤리의 차원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도입 초기라는 여건을 감안하여 '유학'을 사용하며, '유교'는 주로 정치 이념과 관련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한편 유교는 "실천 도덕의 가르침", 유학은 "그러한 실천 도덕을 연구하는 학문 내지 학파"로 정의한 견해도 있다(홍순창, 1991, 「신라 유교사상의 재조명」,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2, pp.202-203).

2) 李喜寬, 1998, 「新羅中代의 國學과 國學生: 『三國史記』 38 國學條 學生關係規定의 再檢討」,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9.
金瑛河, 2005, 「新羅 中代의 儒學受容과 支配倫理」, 『韓國古代史研究』 40.
金德原, 2011, 「신라 國學의 설립과 그 주도세력」, 『震檀學報』 112.
劉占鳳, 2011, 「신라와 당의 교육체제 비교: 中央官學을 중심으로」, 『大邱史學』 104 .
황의동, 2012, 「국학(國學) 설립의 의의와 신라유학의 발전」, 『韓國思想과文化』 63.
한준수, 2014, 「신라 중대 國學의 설치와 운용」, 『韓國古代史探究』 17.

3) 權仁瀚, 2015, 「출토 문자자료로 본 신라의 유교경전 문화」, 『口訣研究』 35.
손환일, 2017, 「한국 고대의 유교경전 기록과 목간(木簡)의 서체(書體)」, 『韓國思想과文化』 87.

4) 「임신서기석」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末松保和, 1936, 「慶州出土の壬申誓記石について」, 『京城帝大史學會誌』 10; 1954, 「壬申誓記石」,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이병도, 1957, 「壬申誓記石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논문집(인문사회과학)』 5;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大坂金次廊, 1967, 「新羅花郎の誓記石」, 『朝鮮學報』 43.
田中俊明, 1983, 「新羅の金石文: 壬申誓記石」, 『韓國文化』 6-7.
朴蓮洙, 1982, 「壬申誓記石에 관한 考察: 花郎의 '天' 및 '國家'觀」, 『陸士論文集』 23.
김창호, 1984, 「壬申誓記石 製作의 年代와 階層」, 『加耶通信』 10; 2009, 『삼국시대 금석문 연구』, 서경문화사.
孫煥一, 2000, 「壬申誓記石의 書體考」, 『美術資料』 64.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진전되었음을 반영한다.[5]

문제는 이 비가 언제 제작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두 청년의 忠道 맹서가 花郎의 행적을 연상시킨다는 데 착안하여 이것이 화랑의 활약기에 제작된 것이라고 보고, 그 시기를 552년, 또는 612년으로 추정한 견해가 있었고,[6] 이후 연구에서 대부분 추가적인 논의 없이 이 추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논점에 따라 552년, 또는 612년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문의 주인공이 화랑이라거나 제작 시기를 화랑의 활약기로 볼 근거는 없다. 단지 『삼국사기』 열전이나 崔致遠의 風流 설명 등을 통해 수립된 화랑의 이미지를 토대로 유추한 것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관련 연구들이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제작 시기를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은 학문적으로 재고할 부분이다. 더구나 화랑도의 사상적 내용에 대한 이해로까지 확대 재생산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더욱 커진다.[7] 「임신서기석」의 제작 시기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임신서기석」은 그간 신라의 유학 이해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였던 만큼, 이 문제는 신라 중고기 유학 이해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진흥왕순수비」와 더불어 『삼국사기』 열전의 중고기 활동 인물에 대한 설명에도 유학 경전의 구문이 언급되고 있고, 强首 열전에는 경전 학습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이러한 지표들을 토대로 신라 중고기의 유학 이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전 명칭이 등장하는 금석문 자료인 「임신서기석」은 이러한 입론의 실질적인 준거가 되었다. 따라서 「임신서기석」의 제작 시기를 달리 보게 된다면,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석해야 하고, 신라 중고기의 유학 이해 또한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 유학 이해의 지표는 경전의 유입과 학습, 교육과 이에 기반한 관리 등용, 그리고 그 내용의 이념적 사회적 활용 등에서 찾아진다. 학문적으로 유학의 수용과 이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이후 역사에서 정치 이념으로 기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면서 국가 체제가 정비되어 나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학 이해에 대한 판단은 경전 학습 및 그 반영으로서 정치 이념으로의 활용이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전에 있는 특정 구문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유학 이해의 지표로서 규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경전 이해와 별개로 漢字 기반의 '문장'을 위해 경전에서 비롯된 특정 구문을 관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구문, 또는 이와 관련된 사적이 유학 이해의 지표로서 적합성

---

5) 李基白, 1869, 「新羅統一期 및 高麗初期의 儒敎的 政治理念」, 『大東文化硏究』 6·7; 1986, 『新羅思想史硏究』, 一潮閣.
홍순창, 1991, 앞의 논문.
노중국, 2008, 「신라 中古期 儒學 사상의 수용과 확산」, 『大邱史學』 93.

6) 이병도, 1957, 앞의 논문.

7) 「임신서기석」은 화랑을 통해 당시의 사상과 윤리의식 등을 설명하려는 연구에서 핵심 근거가 되고 있다. 관련 연구로 다음이 참고된다.
장지훈, 2001, 「신라의 유교사상」, 『史叢』 54.
조남욱, 2014, 「신라 화랑도에 내재한 유교사상」, 『윤리교육연구』 35.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을 가지는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임신서기석」의 제작 시기를 새롭게 파악하고, 이에 수반하여 신라 중고기 유학 이해의 내용을 검증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임신서기석」의 제작 시기에 대한 기존 설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제 제작 시기를 추적해 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동안 신라 중고기 유학 이해의 근거로 제기되었던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신라에서 유학 이해가 자리잡는 시기를 교육 체계와 연계하여 확인해 볼 것이다.

II. 「壬申誓記石」의 제작 시기 검토

1. 비의 제작 시기에 대한 諸說 비판

「임신서기석」은 비문의 글자 상태가 양호하여 판독에 큰 이견은 없다. 일반적인 판독문은 다음과 같다.[8)]

(1)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天前 誓今自
(2) 三年以後 忠道執持過失无 誓若此事失
(3) 天大罪得 誓若國不安大亂 世可容
(4) 行誓之 又別先 辛未年七月卄二日 大誓
(5) 詩尙書禮傳倫得 誓三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먼저 3행과 5행에 보이는 '得'은 자형으로는 '淂'인데 이체자로 통용된 것으로 보인다. 3행은 '容'은 '寧'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글자 형태는 '容'에 가깝지만, 내용상 앞의 '大亂'을 해소한 상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寧'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체자의 가능성도 있어 차후 검토가 요망된다.

비문의 맹서는 壬申年과 그 前年인 辛未年 두 차례 이루어졌다. 임신년의 맹서는 다시 ① 지금부터 3년 이후 忠道를 지키고 과실이 없도록 한다, ② 만약 이 일을 못하면 하늘에 죄를 얻는다, ③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크게 어지러워지면 세상을 편안하게 만든다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다음에 신미년의 맹서는 같은 구도에서 두 항목으로 나뉜다. 하나는 詩와 尙書, 禮 등을 학습한다는 내용으로 보이고,[9] 다른 하나는 3년이라는 내용만 파악된다. 흔히 경전을 3년 동안 학습한다는 것으로 묶어서 해석하지만, 임신년의 두 번째 맹서의 형태에 비추어 '誓'에 의해 전후 구문이 나뉜다. 왜 "三年"만 적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이는 前年의 맹서가 왜 뒤에 기재되었는가 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임신서기석」은 상단과 하단의 폭이 차이가 난다. 5행 구문을 보면 가급적 글자 배열을 맞추고는 있지만 아래로 가면서 행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외곽을 맞추지 않은 자연석에 바로 글자를 새긴 것을 의미한다. 1~3행의 행간 간격에 비해 3~5행의 행간 간격이 넓은 것도 그 때문이다.

당초 임신년의 맹서는 "行誓之"로 마무리된다. 이 때 여백이 남자 주인공들은 前年의 맹서를 기억하며 추가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넣기에는 공간이 부족한 탓에 "三年"까지만 적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비의 왼편에 있던 이후 내용이 떨어져나갔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으나 5행이 비석의 좌측 경사면과 비슷한 각도로 비스듬하게 내려가고 있어 행이 더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신미년 맹서는 공간 부족으로 내용을 새기다 만 것이다. 임신년 맹서에서 "忠道執持"를 다짐하고 다음 항목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에 비추어 신미년 맹서에서도 앞의 경전 학습에 대한 추가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에는 비의 제작 시기에 대한 기존의 주요 견해를 살펴보자. 「임신서기석」의 제작 시기에 대해 처음 의견을 제시한 것은 末松保和이다. 그는 詩(毛詩), 尙書, 禮(禮記), 傳(春秋左氏傳) 등 비문에 언급된 경전이 신라 國學의 과목과 통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三國史記』 雜志에는 국학의 敎授之法에 대해 『周易』·『尙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으로 전공을 나누어 博士와 助敎를 두어 가르친다고 되어 있다.[10]

신라의 국학은 682년(신문 2)에 설립되지만, 잡지에는 소속 관원의 하나인 大舍에 대해 651년(진덕 5)

8) 통상 비문의 끊어 읽기에서 맹서 항목마다 나오는 '誓'를 항목 끝에 넣어 우리식 어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3행의 맹서 내용과 4행의 "行誓之"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 필자는 '誓'가 맹서 각 항목의 서두에서 열거하는 기능을 하며, "行誓之"는 맹서 전체를 총괄하는 종결 표현이 아닐까 한다. 다만 그 차이가 비문 해석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9) 이어지는 '傳'은 앞의 '禮'와 연결하여 禮傳으로 볼 수도 있고, 『春秋左氏傳』으로 볼 수도 있다. 국학 교과목에 『춘추좌씨전』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약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10) 『三國史記』 권38, 雜志7 職官 上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에 두었고 경덕왕 때 主簿로 고쳤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이 시기에 국학 설립의 단서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비의 제작 시기를 672년이나 732년으로 추정하였다.[11] 그는 비의 주인공을 花郎으로 보는 점에서는 이후 견해들과 다르지 않으나 시기 비정에서 국학과의 관련성을 적극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학이 신문왕 때 설치되는데 그보다 먼저 소속 관원을 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12] 大舍는 중앙 관청 여러 곳에 보이는 관직이다. 설치 시기는 관청마다 다르지만 진덕왕 때 설치된 사례도 보인다. 특히 주목할 것은 禮部이다. 예부 소속 대사가 바로 651년에 설치되었다.[13] 국학은 예부 소속이다.

그렇다면 예부의 대사가 경덕왕 때 主簿로 개정되는 것에 연동하여 국학 소속 대사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들어간 것일 수 있다. 682년 국학 설치 기사를 보면, 卿 1인을 둔 사실만 나온다. 이것은 설립 초기 예하 관원은 기존 예부에서 차출되어 구성되었음을 시사한다. 박사와 조교는 교육을 담당하는 관원이며 대사는 행정직으로 이해되는데, 처음에 예부 소속 대사가 국학 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사의 연혁을 근거로 국학 설치를 진덕왕대로 소급할 수 없다.

한편 이병도는 비문의 주인공을 화랑으로 판단하고 화랑의 활약기에 비가 제작되었다고 보되 비문의 경전을 국학과 연결짓지는 않았다. 아울러 「진흥왕순수비」에 보이는 '修己' 등의 유교 이념과 우리말 어법이면서 이두가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통일 전의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그 시기를 552년 또는 612년으로 추정하였다.[14]

그러나 비문의 주인공을 화랑으로 볼 근거도 없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화랑의 '활약기'에 제작되었다고 볼 이유 또한 없다. 비문의 주인공이 표방한 忠道는 왕조 국가의 일반적 덕목을 漢式으로 표현한 것이며, 굳이 '화랑'이 아니어도 나올 수 있다. 후대에 유교 정치 이념이 확산되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신라 '통일' 전이라는 시기를 입증하는 지표가 될 수 없다.

우리식 어법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그동안 이두의 초보적 형태로서 검토되어 왔던 變格漢文, 곧 신라식 한문이 이두한문의 발전과는 별개로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15] 따라서 우리식 어법을 근거로 이두에 선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진흥왕순수비」의 인식은 통치자의 이념으로 차용된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청년의 경전 학습과는 층위가 다르다. 「진흥왕순수비」가 유교 이념 수용의 초기적 단서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임신서기

11) 末松保和, 1936, 앞의 논문.

12) 한준수는 兵部令이 법흥왕 3년, 兵部가 법흥왕 4년에 설치된 것을 준거로 관원이 관부보다 먼저 설치될 수 있다고 하여 진덕왕 때 국학이 설치되었다고 보았다(한준수, 2014, 앞의 논문, p.43). 그러나 병부 설치는 신라본기, 병부령 설치는 잡지의 기사로서 출처가 다르고, 1년의 차이는 기록 과정의 오차로 볼 여지가 있다. 반면 국학은 大舍 설치와 卿 임명 사이에 30여 년의 시차가 있다. 또한 국학 설치와 함께 卿이 설치되는 것에 비추어 병부의 책임자인 병부령 또한 병부와 함께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13) 그밖에 賞賜署 등의 大舍가 651년에 설치되었다.

14) 이병도, 1957, 앞의 논문, pp.3-6.

15) 최연식, 2016, 「新羅의 變格漢文」, 『木簡과文字』 17.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석」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산된 단계를 반영하므로 양자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화랑이나 「진흥왕순수비」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김창호 역시 비의 제작 시기를 국학 성립 이전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존 견해를 채용하였다.[16] 그 내용은 ① 국가에 대한 충성 맹약은 삼국 각축기 청년들의 애국기상과 생사관을 보여준다는 점, ② 하늘에 대한 信約은 신라의 민간 신앙에 내재해 있다는 점, ③ 사다함과 무관랑, 귀산과 추항에 보이는 二人 맹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④ 忠道라는 용어는 신라 화랑들의 국가의식의 표현인 세속오계에서 제일 앞에 오는 것과 일치한다는 점, ⑤ 金后稷의 상소와 朴堤上의 사신 파견 기사에 유교 경전이 국학 이전에 이미 학습된 증거가 있다는 점 등이다.

여기에 진흥왕 때는 화랑도가 설치된 초기이며 김유신이 17세에 告天 맹약을 한 것 등이 비문 내용과 상통한다는 점과 貴山과 箒項의 맹서가 진평왕대임을 지적하였다. 한편 4행의 "行誓之"의 '之'가 종결형으로 사용된 점에 주목하여 「南山新城碑」(591)의 "誓事之"와 연결하고, 6세기 전반 금석문에서는 나온 예가 없지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작 시기를 552년으로 추정하였다.[17]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비의 내용을 화랑과 연결할 근거는 없다. 청년들의 애국 기상이 꼭 전쟁기에만 표출되는 것은 아니며, 유학에서 忠孝는 항상적인 가치이다. 하늘에 대한 信約이나 2인 맹서 또한 특정 시기에 국한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이러한 내용들은 명확한 시간적 지표가 될 수 없는 만큼, 그로부터 「임신서기석」의 제작 시기를 유도할 수 없다.

상식과 달리 世俗五戒가 화랑의 이념이라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忠이 앞서는 것은 국가 이념에서 항상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김후직과 박제상의 사례는 열전 기사로서 후대에 윤색된 요소를 가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한편 논자가 새롭게 지적한 '之'의 용법이 「남산신성비」에서 비로소 보인다는 점은 오히려 비의 제작 시기가 그보다 후대로 내려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관련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은 시기 특정의 준거가 될 수 없다.

실상 「임신서기석」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비문 내용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지표가 되는 경전과 국학과의 관계는 배제하고, 관계가 모호한 화랑을 지표로 삼아 시기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다시 비의 내용을 가지고 화랑의 사상적 기반을 설명함으로써 결국 순환논리에 빠지고 있다.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임신서기석」은 화랑과 별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書體의 관점에서 비의 제작 시기를 파악한 연구가 있어 눈길을 끈다. 손환일은 「임신서기석」에 새긴 필체가 격식을 차리지 않은 생활서체임을 지적하고, 진흥왕 재위기에 세워진 「丹陽新羅赤城碑」의 필법과 비슷하다고 보아 552년설을 주장하였다.[18] 논자는 「광개토왕비」, 중고기 금석문, 남북조 서체 등을

16) 이 부분에 대해 논자는 박연수, 1982, 앞의 논문, p.117에 인용된 柳承國의 견해를 재인용한 것으로 밝혀 놓았으나 구체적인 제목은 제기하지 않았다. 필자는 김창호가 인용한 논지를 재인용하였다.

17) 김창호, 2009, 앞의 논문, p.153.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통해 시기 비정을 시도하며 「임신서기석」의 서체가 「단양적성비」와 가장 유사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19)]

그러나 서체를 통해 「임신서기석」의 제작 시기를 추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일단 서체를 통한 시기 비정은 적어도 해당 글씨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것일 때나 가능하다. 필자가 서예사에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아직 서예에 미숙한 사람이 비석에 새긴 것을 가지고 서체의 시기성을 논할 수 있는지 수긍이 가지 않는다.

시대적 지표로서 서체의 판단은 그것을 쓴 '주체'와 서체 자료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해당 글자가 서체 유행의 영향을 받을 만한 일정 수준 이상의 書者이거나 아니면 해당 서체가 사회에 보편화되어 누구라 구사할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임신서기석」은 자연석에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로 글씨를 새긴 것이다. 상단보다 하단이 좁아 글자도 좁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행을 맞추려고 했지만 글자 위치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수준 있는 서자가 종이에 미리 쓴 것을 붙여서 새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돌에 직접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글자를 인식하며 직접 새겼을 것이다. 이렇게 새긴 글자에서 서체가 온전히 나타날 수는 없다.

논자는 이미 6~7세기 비라는 것을 전제하며 동 시기의 비문을 이용하여 서로 유사한 것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했는데, 이는 결국 결론에 맞춘 분석을 넘기 어렵다. 격식이 없는 생활서체라면 서체 비교 자체에 한계가 명확하며, 정부의 조치를 담은 「단양적성비」 등이 그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 한다. 「단양적성비」와 글씨의 유사성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시대라고 보증할 수는 없다.

한편 다음 기사는 「임신서기석」에 보이는 경전의 신라 유입 시기를 가늠하는 방증이 된다.

> 王이 사신을 보내 梁에 가서 朝貢하고 겸하여 毛詩博士, 『涅槃經』 등의 經義, 아울러 工匠과 畵師 등을 청하니 따랐다.[20)]

위의 기사는 541년 백제 성왕이 梁에 조공하면서 毛詩博士를 청한 사실을 보여준다.[21)] 백제가 『詩經』 전문가를 초빙했다는 것은 당시 『시경』이 백제에 도입되었음과 아울러 아직 그에 대한 이해가 미흡했던 사정을 짐작케 한다.[22)]

그런데 「임신서기석」에서 『시경』을 포함한 여러 경전에 대한 학습을 다짐하는 것은 위의 기사보다 경전

18) 孫煥一, 2000, 앞의 논문.

19) 권인한도 이를 지지하였다(권인한, 2015, 앞의 논문, p.38).

20)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4 聖王 19년, "王遣使入梁朝貢 兼表請毛詩博士涅槃等經義并工匠畵師等 從之"

21) 이 기사는 『南史』에도 나오지만, 1년이 빠르다(『南史』 권7, 梁本紀中 武帝下, "百濟求涅盤等經疏及醫工畵師毛詩博士 并許之").

22) 『日本書紀』에는 백제가 513년, 516년, 554년에 일본에 五經博士를 파견한 기사가 보여 당시 백제에서 오경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梁에 毛詩博士를 요청한 것은 주요 경전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치 않았음을 시사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이해가 훨씬 일반화된 상황을 반영한다. 백제는 이른 시기부터 중국과 직접 통교하고 있었고, 신라는 진흥왕대에 이르러 비로소 직접 통교가 시작되었다. 6세기 중반 백제도 『시경』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는데, 동 시기를 전후해 신라가 이보다 훨씬 진전된 이해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또 하나 참고되는 것은 삼국의 문화에 대한 『舊唐書』의 기록이다. 여기서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 모두 五經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23] 그런데 신라는 7세기 후반 국학을 설치하고 이후 五經 학습이 이루어졌음에도 그와 같은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10세기 초까지 국가가 존속함으로써 항목 구성에 차이가 난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고구려·백제와 병존한 시기에 신라에서 이에 상응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일 여지도 있다.

이처럼 기존 논지의 근거와 방증 사례를 검토할 때 「임신서기석」의 제작 시기를 552년이나 612년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각도에서 제작 시기를 찾아야 할 것인데,[24] 다음 절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천착해 보기로 한다.

2. 비의 제작 시기와 배경

이 절에서는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통해 비의 제작 시기를 찾아보기로 한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할 것이다. 하나는 비문 내용이 어떤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552년 내지 612년은 신라의 전쟁기이다. 나당전쟁이 종결된 이후는 체제 안정기로 볼 수 있다. 비문 내용이 어느 시기의 상황에 부합하는지를 통해 비의 제작 시기에 접근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전 학습의 목적과 의미이다. 유학 경전의 학습은 그것을 통한 관리 선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는 교육제도와 연결된다. 出仕와 무관한 경전 학습은 조선시대 處士의 경우에나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청년의 경전 학습 또한 교육 및 출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인 바, 이것이 어느 시기에 조응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 상황부터 짚어 보자. 비문이 간략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회상을 추출하기는 어렵다. 다만 유념해 볼 구문이 하나 발견된다. 그것은 두 번째 맹서에 보이는 "若國不安大亂"이다. 내용에 '만약'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이 맹서를 할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

23) 『舊唐書』 권199, 列傳149 東夷 高麗, "其書有五經及史記漢書范曄后漢書三國志孫盛晉春秋玉篇字統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
『舊唐書』 권199, 列傳149 東夷 百濟, "其書籍有五經子史 又表疏并依中華之法"
고구려의 五經은 『南齊書』 등에도 보인다(『南齊書』 권58, 列傳39 東夷 高麗國, "知讀五經"). 이에 근거하여 5세기 경에 고구려에 오경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권인한, 2015, 앞의 논문, p.30), 이것이 南齊 시기의 상황이 아니라 『남제서』를 편찬한 梁代의 인식에 의해 6세기의 상황이 투영된 것일 여지도 있다.

24) 최근 신라의 變格漢文을 검토하면서 「임신서기석」의 문장이 자연스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들어 6세기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보다 후대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 다만 논자는 비의 제작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최연식, 2016, 앞의 논문, pp.51-52).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는다. 곧 당시는 나라가 '불안'하거나 '대란'의 상황이 아닌 것이다.

6세기 신라는 진흥왕의 활발한 영토 확장과 함께 전면적인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로부터 백제와 고구려를 공멸할 때까지 나라의 "不安大亂"은 현실 상황이었다. 552년을 전후해 신라는 한강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550년 고구려와 백제가 충돌하는 틈을 타 道薩城과 金峴城을 취하였고,[25] 이듬해에는 고구려 방면 10여 성을 공취한 것으로 나온다.[26] 553년에는 백제의 東北鄙를 취하여 新州를 설치하였다.[27] 이로부터 신라와 백제의 전쟁이 격화되었다. 612년 전후도 다르지 않다. 611년 백제는 신라 椵岑城을 100일이나 포위 공격하였다.[28]

따라서 이 시기에 진행된 수련이라면 그에 걸맞은 지향과 행위가 나와야 할 것이다. 김유신 열전에 보이는 수련 기사는 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김유신은 611년에 고구려·백제·말갈이 강역을 침탈하는 데 분개하여 寇賊을 평정할 뜻을 가졌다고 한다. 그가 하늘에 맹서한 내용을 보면 "略無寧歲", "志淸禍亂"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당시는 평안할 때가 없는 화란의 시기였던 것으로, 「임신서기석」에 언급된 국가의 "不安大亂"에 해당한다.

물론 이 사적은 그가 神人을 만나 秘法을 전수받는 내용이어서 후대에 윤색된 것이 분명하다. 다만 적어도 7세기 초 상황에 대한 인식은 엿볼 수 있다. 이 시기는 후대에도 국가 위기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다. 「임신서기석」이 612년에 제작된 것이라면 이는 김유신의 청년기와 같은 시기가 된다. 그러나 비문의 주인공은 일반적인 忠道 관념과 함께 '만약'이라는 가정 상황을 말할 뿐, 전쟁이라는 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비가 체제 안정기에 들어와 제작된 것임을 반영한다.

다음에 경전 학습 목적과 관련된 문제를 따져 보자. 6세기 말 내지 7세기 초에 청년의 경전 학습이 단순히 학문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때, 경전 학습을 통한 출사는 6~7세기 상황에 부합할 수 있을까. 여기서 두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는『삼국사기』열전에 보이는 花郎 및 郎徒의 활동과 출사이다. 이들에게 경전 학습을 유추할 만한 사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무예 연마가 부각되고 있다. 官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 어려서 花郎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잘 교유하였다. 16세에 능히 말을 타고 활을 쏘니 [騎馬彎弓] 大監 某가 太宗大王에게 추천하였다.[29]

위에서 화랑이 된 관창은 16세의 나이에 말타기와 활쏘기를 하면서 발탁되었고, 660년 황산 전투에 副

25)『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1년, "春正月 百濟拔高句麗道薩城 三月 高句麗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疲 命伊湌異斯夫出兵擊之 取二城增築 留甲士一千戍之"

26)『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2년,"王命居柒夫等 侵高句麗 乘勝取十郡"

27)『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眞興王 14년 7월, "取百濟東北鄙 置新州"

28)『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眞平王 33년 10월, "百濟兵來圍椵岑城"

29)『三國史記』권47, 列傳7 官昌, "少而爲花郎 善與人交 年十六 能騎馬彎弓 大監某薦之太宗大王"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將으로 참여했다가 전사하였다.

관창의 사례는 당시 출사에 무예가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무예를 중시한 것은 전쟁기였던 당시 상황에서 당연한 것이거니와 국가 팽창기였던 진흥왕대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화랑의 설치 자체가 집단 활동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찾는 데 있었는데, 관창은 그러한 목적에 들어맞는 사례인 셈이다. 김유신이 산에 들어가 무예를 닦은 것도 결국 출사를 위한 과정이었다. 이들에게서 경전 학습은 검출되지 않는다. 결국 7세기 화랑이 「임신서기석」에 보이는 수준으로 경전을 학습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경전 학습의 가장 이른 사례로 나타나는 强首의 경우이다. 열전 기록에 따르면, 그가 어려서부터 남다른 자질을 보이자 부친은 그를 잘 길러서 '國士'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가졌다. 관리로의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부친이 儒·佛 중 어느 것을 배울 것인가를 묻자 강수는 儒를 선택하였다. 그가 佛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世外之敎라는 것 때문인데, 이는 그가 儒의 학습을 통해 출사를 도모했음을 보여준다. 부친의 허락을 받은 강수는 『孝經』·『曲禮』·『爾雅』·『文選』을 배웠고, 마침내 入仕하여 관직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30]

강수가 어려서 유학을 배우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어느 정도 유학의 보급을 상정할 수 있다.[31] 그러나 강수의 사례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우선 그는 中原京 출신으로 나오는데 당시에는 중원경이라는 지명이 없었다. 곧 그의 열전 기사는 후대에 찬술된 것으로서 윤색과 과장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리고 부친이 佛·儒의 선택을 물은 것을 보면, 당시 지식인으로의 성장에서 불교가 주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그가 배웠다는 서적이다. 『孝經』과 『曲禮』는 유학 경전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전문성보다는 기초 교양의 성격이 강하고,[32] 『爾雅』와 『文選』은 학문보다는 문장을 위한 교재에 해당한다. 곧 강수는 '儒'의 학습을 말하고 있고 기초 교양으로서 이를 학습한 측면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문장가'로서 훈련을 받았던 것이다.

결국 강수의 활동은 후술하듯이 원광과 같은 遊學僧이 담당하던 문장을 전문가가 담당하게 되는 변화를 보여준다. 문장가의 임용은 당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본격화하던 신라에게 절실한 과제였고, 강수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면모와 관련하여 그의 열전 기사를 음미해 보자.

① 太宗大王이 즉위한 뒤 唐의 使者가 와서 詔書를 전달했는데, 그 중에 읽기 어려운 곳이 있었다. 왕이 불러서 묻자 왕 앞에서 한 번 보고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막힘이 없었

30) 『三國史記』 권46. 列傳6 强首

31) 이기백은 강수를 유학자로 규정하고, 그의 사례가 당시 전제왕권 하에서 관료제도의 성장과 짝하는 것이며, 유교가 현세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도덕적 성격으로 사회적 의미를 확보하였다고 평가하였다(李基白, 1969, 「强首와 그의 思想」, 『文化批評』 3; 1986, 『新羅思想史硏究』, 一潮閣).

32) 최연식은 강수가 학습한 경전이 「임신서기석」의 것에 비해 초보적인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6세기 중엽에 신라 청년들이 해당 경전들을 학습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하였다(최연식, 2016 앞의 논문, p.52 주 17)).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다. (중략) 당 황제의 조서에 회답하며 감사하는 表를 짓게 했는데, 문장이 정교하고 뜻이 곡진하여 왕이 더욱 특별하게 여겼다.[33]

② 강수는 문장을 자임하여 능히 書翰으로 중국과 고구려, 백제에 뜻을 전함으로써 結好에 성공할 수 있었다. 우리 先王이 唐에 請兵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것이 비록 武功이라고 하지만 또한 문장의 도움에 말미암은 것이다.[34]

위의 두 기사는 문장가로서 강수의 활동을 보여주는 일화들이다. ①은 강수가 중국의 조서에서 어려운 부분을 막힘 없이 잘 읽었고, 그래서 답례하는 표문을 지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신라 조정은 조서를 온전히 읽지 못하는 상태였다. 강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서술이지만, 한편으로 문장 이해가 아직은 충분치 않은 상황을 반영한다. 유학 경전에 대한 이해 또한 미흡할 수밖에 없다.

②는 강수가 외교 문서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는 내용으로서 고구려와 백제의 평정 또한 그의 문장에 힘입은 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원광의 乞師表로 인해 황제가 원병을 보냈다는 서술과 상통한다. 전쟁기에 필수적인 '武'와 더불어 '文'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찬자의 시각을 느낄 수 있다. 강수가 선택한 '儒' 또한 문장에 초점이 있었다. 그가 배운 경전들이 주로 문장을 위한 것이며, 당시 유학 경전의 근간인 五經에 대한 학습에는 이르지 못한 것은 그 반영이다.

신라는 신문왕 때 國學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국가적 교육을 시행하였다. 다만 이때 유학 경전의 교육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志에 소개된 敎授之法을 보면, "『周易』·『尙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을 나누어 전공으로 삼고, 博士와 助敎 1인을 둔다"[35]라고 되어 있다. 개별 경전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이 규정되고 있다. 그런데 國學 諸業의 博士가 설치되는 것은 747년(경덕 6)의 일이다.[36] 물론 이전에도 경전 교육이 진행되었을 것이지만, 박사의 설치는 교과목의 전문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788년(원성 4)에 讀書三品科가 제정되었는데,[37] 그 기사는 다음과 같다.

처음으로 讀書三品으로 出身하도록 규정하였다. 『春秋左氏傳』이나 『禮記』나 『文選』을 읽고 그 의미에 통달하고 아울러 『論語』와 『孝經』을 잘 아는 자가 上이고, 『曲禮』·『論語』·『孝經』을 읽은 자가 中이며, 『曲禮』·『孝經』을 읽은 자가 下이다. 만약 五經·三史·諸子百家書에

33) 『三國史記』 권46, 列傳6 强首, "及太宗大王卽位 唐使者至 傳詔書 其中有難讀處 王召問之 在王前 一見說釋無疑滯 (중략) 使製廻謝唐皇帝詔書表 文工而意盡 王益奇之"

34) 『三國史記』 권46, 列傳6 强首, "强首文章自任 能以書翰致意於中國及麗濟二邦 故能結好成功 我先王請兵於唐 以平麗濟者 雖曰武功 亦由文章之助焉"

35) 『三國史記』 권38, 雜志7 職官上, "以周易尙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 分而爲之業 博士若助敎一人"

36)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景德王 6년 정월, "置國學諸業博士助敎"

37) 독서삼품과에 대한 전반저인 고찰은 洪起子, 1998, 「新羅下代 讀書三品科」,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9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 두루 통달하면 등급을 넘어 발탁한다. 전에는 단지 弓箭으로만 사람을 선발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개정하였다.[38]

위의 독서삼품과 규정은 *敎授之法*과는 다소 맥락이 다르다. 위의 규정 중 上品에만 五經 중 『춘추』와 『예기』가 있고 『시경』과 『서경』, 『주역』은 없다. 中品과 下品에는 오경이 들어 있지 않다. 오경은 예외 규정에서 다시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품의 『곡례』와 『효경』은 강수가 학습한 것과 일치하며, 중품은 여기에 『논어』가 추가되고 있다. 『문선』은 상품에만 보인다.

이 규정의 목적은 바로 '出身', 곧 관리 선발에 있었는데, 그 선발 기준은 '문장'이었다. 그리고 기사 말미의 "이전에는 弓箭으로만 사람을 선발하였다"는 내용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무예를 통한 선발은 전술한 7세기 관창 사례와 맥이 닿아 있다. 7세기 이래로 신라는 무예로 관리를 발탁하는 것이 주류였던 것이다.

그런데 원성왕대에 이르러 문장이 기본적인 관리 선발 기준이 된 것이다. 강수의 출사에 보이는 학습 과정이 관리 선발의 보편적 방식으로 채용된 것이다. 경전 학습은 문장을 위한 토대로서 의미가 있었다. 다만 상품은 교수지법과 맥이 닿아 있다. 교수지법이 전문화된 인력의 확보를 도모한 것이라면, 독서삼품과는 이로부터 관리 일반의 양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때 三品 규정에 이어 五經·三史·諸子百家를 대상으로 한 超擢 규정을 둔 것이 주목된다. 이는 실제 이들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이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독서삼품과는 五經 교육이 정립된 상황에서 기본적인 시험 과목을 제시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시험 대상에 들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감안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였다.

「임신서기석」에서 詩·尙書·禮 등의 학습을 다짐한 것은 이러한 관리 선발에 대한 준비로 읽힌다. 그만큼 비문은 경전 교육과 관리 선발 체계가 정비된 상황을 반영하며, 이 경우 壬申年은 경전 학습과 문장에 기초한 보편적 관리 선발을 도모한 독서삼품과 시행 이후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점에서 792년(원성 7), 또는 852년(문성 14)으로 판단할 수 있다.

III. 신라 중고기 유학 이해의 실상

1. 유학 이해 사례의 비판적 검토

「임신서기석」이 552년, 혹은 612년에 만들어졌다는 이해는 관련 연구 대부분에서 그대로 답습되었다. 논자에 따라 552년으로 확정하고 논지를 전개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진흥왕순수비」를 비롯하여 유학

38)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元聖王 4년, "始定讀書三品以出身 讀春秋左氏傳若禮記文選而能通基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若博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前祇以弓箭選人 至是改之"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적 인식이 투영된 사례와 결합되면서 신라 중고기 유학의 확산을 설명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임신서기석」이 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라면, 여기에 연동된 제반 역사상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6~7세기 유학 이해를 설명한 주요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이때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적해 둘 사항이 있다. 먼저 신라 중고기의 "유학 이해", 또는 "유교 이념"을 논할 때 그 함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유학 이해는 문자 체계로서 한문의 이해와 밀접히 관련되지만, 내용상 양자는 층위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학은 漢代에 국가적으로 공인되면서 공자 이래의 사상 체계를 넘어 중국의 전통에 대한 이해의 준거가 되었다. 그 결과 유학은 정치와 사회 일반의 인식과 이를 표현한 문장에 투영되었다. 따라서 신라를 포함한 삼국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문을 수용할 때 이미 그 내용에는 유학적 요소가 내재해 있었다. 처음부터 문장과 유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부분까지 고려할 때 한문과 유학의 수용 및 이해, 활용은 대략 세 단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문자로서 한자를 가져다 쓰는 단계이다. 기존에 구술, 또는 기호나 징표를 통해 이루어지던 커뮤니케이션을 한자라는 문자를 통해 해결하는 단계이다. 이는 문자의 기능에 초점을 두므로 사용자가 이해하는 즉자적 의미를 위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2단계는 한문으로 된 문장을 구사하는 단계이다. 특정한 상황이나 추상적 내용을 한자 구문으로 표현하며, 개념이 활용되고 정형화된 문장을 구사한다. 이 단계에서 개념과 구문은 한자 어휘의 뜻을 이용하여 자체적인 조합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관용화된 것들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바로 이 개념과 구문에 유학적 요소가 들어 있는 것이다.

3단계는 經學 이해를 토대로 정치 또는 사회 이념까지 표현하는 단계이다. 관용화된 개념과 구문이 활용되면서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로부터 그 원전에 대한 탐구로 나아가게 된다. 경전의 구문을 통해 입법화된 인식을 표현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수록 경학 탐구도 심화된다.

이상과 같은 단계 설정에 기반하여 유학 이해의 추이를 가늠할 때 다음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2단계에서 과연 "유학 이해"라는 규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유학 경전에서 연원한 특정 표현이 확인되고, 그것이 추상적 이념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유학 이해의 지표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등장은 두 가지 형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는 撰者 또는 言者가 해당 경전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해당 인물이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고, 사회에 일반화된 상황에서 구사된 것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유학 이해의 일반화를 말할 수준이 되지만, 전자의 경우도 유학 이해의 방향성을 보여주므로 함께 포괄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전을 매개하지 않고 관용화된 개념이나 구문을 구사한 경우이다. 곧 '유학'이 아니라 '문장'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것이다. 찬자가 비교적 세련된 문장을 구사할 때, 그가 차용한 제반 표현은 중국에서 정형화 또는 관용화된 것들이 다수 포함되며, 이 중에는 유학 경전에서 온 것들도 있다. 찬자는 이를 토대로 변용을 가하여 문장을 구성하는데, 이는 실제 원전이 되는 경전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나올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수 있다. 이를테면 영어를 사용할 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성경에서 가져온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신라에서 『文選』이 중시된 것은 공부의 근본적인 목적이 '문장'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로 보아 특정 개념이나 구문이 특정 경전에서 나왔다 하여 그 개념의 구사가 바로 해당 경전의 이해를 보증할 수는 없다. 이러한 여지가 존재한다면 2단계에서 곧바로 유학 이해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둘째, 위와 같은 이해에 입각할 때 신라가 문장 수준을 넘어 경전에 대한 직접적 이해, 곧 3단계의 준거를 어느 시기에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우선 그러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정치적 사회적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곧 교육 기관과 관리 선발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물론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셋째, 시기별 지표 자료를 검토할 때 해당 자료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진흥왕순수비」처럼 제작 시기가 확인되는 자료는 시기 판단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삼국사기』 열전 자료는 대부분 후대에 만들어진 傳記에 의거한 것이다. 해당 기사에 나타나는 유학 이해의 지표가 실제 해당 인물의 활동기에 구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전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수립된 유학적 기준이 과거의 상황이나 인물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투영될 수 있고, 의도적으로 내용을 가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 인물의 발언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구사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기존에 제시된 지표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검증해 보기로 한다. 强首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살펴보았으므로 따로 항목을 설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언급하기로 한다.

1) 鳳坪碑

「봉평비」에는 "立石碑人 喙部博士 于時敎之 若此者 獲罪於天"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중 "獲罪於天"이 『論語』 八佾편의 "獲罪於天 無所禱也"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敎를 선포한 사람인 博士를 유학 지식인으로 보기도 한다. 나아가 신라에서 유학 교육을 위해 설치한 기구까지 상정함으로써 법흥왕 단계에 이미 유학교육 체계가 수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39]

「봉평비」는 524년(법흥 11)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불교가 공인된 528년보다 4년이 앞선다. 불교 공인 이전에 유학이 들어왔음은 물론, 이를 교육하는 체계까지 수립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遊學僧이 유학적 소양을 확보하고 문장을 담당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불교가 공인되지도 않은 시기에 유학교육 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크다. 이미 유학 교육을 통해 전문가가 양성되었다면 승려가 문장을 담당할 이유가 없다.

실상 논자가 유학 지식인으로 파악한 喙部博士는 立石碑人에 바로 이어지고 있어 비를 세운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지하듯이 博士는 전문가 내지 기술자를 뜻하는 말이다. 國學의 박사가 특정 경전

39) 노중국, 2008, 앞의 논문, pp.15-16.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의 전문가를 나타낸다면, 「봉평비」의 박사는 명백히 비를 제작하는 전문가로 보아야 한다. 그가 이어지는 敎의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立石碑人으로서 관련된 취지를 전한 것이므로 유학 지식 여부를 유도할 수 없다.

다음에 "獲罪於天"이 『논어』에 나온다고 해서 이 말을 한 사람이 해당 경전을 학습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하늘의 벌을 받는다"는 관념은 굳이 유학이 아니어도 하늘을 최고의 신격으로 삼았던 고대인들의 일반적 사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임신서기석」의 "天大罪得"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바, 이는 유학 이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실상 "獲罪於天" 구문 자체도 개별 한자의 의미를 통해 구성할 수 있는 평이한 구문이다. 특별한 고사를 수반하거나 수사적 구문으로서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면, 특정 경전에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당 경전의 이해를 말하기는 어렵다.

2) 진흥왕순수비

568년에 건립한 「마운령비」와 「황초령비」에는 공통적으로 "帝王建號 莫不修己 以安百姓"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것은 『論語』의 "修己以安百姓"을 차용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兢身自愼 恐違乾道"도 유학적 사고 방식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평가되었다.[40] 전체적으로 전술한 「봉평비」에 비해 세련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논어』는 독서삼품과에서도 중요 경전으로 채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진흥왕 때부터 이미 『논어』가 이해되고 있었다면, 전술한 강수의 경전 학습에서도 『논어』가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비추어 「진흥왕순수비」의 구문은 『논어』 이해의 직접 지표가 되기 어렵다.

「진흥왕순수비」의 내용은 진흥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데 초점이 있다. 여기에는 '왕'으로서 위상과 권위, 덕목 등에 대한 修辭가 들어간다. 비문의 찬자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동원해 적절한 구문을 구성할 것인데, 이는 물론 중국 제왕에 대한 수사에서 차용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사 중에는 유학 경전에서 연원한 것도 다수 포함되지만, 문장의 학습은 그 기능과 용도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해당 수사의 습득이 반드시 출전에 대한 이해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비문의 찬자는 『논어』를 배워서 그 구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문장 훈련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 중에 『논어』에서 연원한 구문이 들어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논어』 이해를 유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라에서 문장 공부의 핵심 텍스트였던 『文選』에도 "修己" 구문이 소개되어 있다.[41]

> 修己安民 良士之所希及 〈修己安民 積德以厚下 論語 子曰 修己以安百姓 尙書 咎繇曰 在安民 孔安國論語注曰 希 少也〉[42]

---

40) 정구복, 2002, 「유학과 역사학」, 『(신편)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p.121.

41) 『文選』은 梁의 昭明太子 蕭統이 찬술했으며, 그는 531년에 사망하였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위 구문은 陸士衡의 「五等論」에 등장하는 "修己安民"과 그 해설로서 『논어』의 "修己以安百姓"을 소개하고 있다. 찬자가 문장 구사를 위해 『문선』을 학습했거나 혹은 유사한 맥락의 학습 자료를 접했다면, 『논어』의 해당 구절도 어렵지 않게 차용할 수 있다.

여기서 비문의 찬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판독되는 비문에서 찬자는 직접 확인되지 않는다. 비의 뒷면에는 수행원, 혹은 立碑 관련자들의 명단이 정리되어 있는데, 가장 앞서 기록된 인물은 승려인 法藏과 慧忍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고위자인 居柒夫가 나온다. 말미에 기록된 助人 舜知 奈末과 그 앞에 기록된 非知 沙干은 통상 비문의 말미에 비를 건립한 사람이 기록되는 점에 비추어 역시 立碑 실무자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비문은 수행 승려들이 찬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가 梁에 처음 사신을 보낸 것이 521년(법흥 8)의 일이다. 그리고 梁은 549년(진흥 10) 사신과 함께 入學僧 覺德을 보내 佛舍利를 전해 왔다. 이를 통해 신라의 불교 공인 후 유학승이 배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진흥왕순수비」에 보이는 승려들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들은 당연히 불교를 배움과 아울러 한문과 문장을 학습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장에 보편적으로 구사되는 유학 경전 내용도 습득하였다. 이는 후술할 圓光의 사례에서 뒷받침된다. 승려들은 이러한 지식을 기초로 비문을 찬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진흥왕순수비」의 "修己" 표현을 가지고 신라 사회의 유학 이해를 논할 수 없다. 이는 승려가 습득한 문장을 통해 제왕의 권위를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이후 유학 이해의 단초를 제공함을 물론이지만, 그 자체가 유학 이해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兢身自愼 恐違乾道" 같은 표현 또한 제왕의 덕목으로서 회자되던 것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純風不扇則世道乖眞 百化不敷則耶爲[邪僞]交競"에 보이는 '世道' 또한 유학에서 중시되는 개념이다. "百化"라는 표현도 『禮記』에 나온다.[43] '巡狩'는 중국 천자의 통치 행위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처럼 국왕을 찬미하는 순수비를 정제된 형태로 찬술하는 데 중국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수사들이 동원되었다. 이들 각각이 그 원전이 되는 경전 및 그것에 담긴 사상적 내용의 이해를 토대로 구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설사 문장을 지은 승려가 어느 수준의 유학 지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라 사회에 유학을 보급하는 기능을 했다고 보증할 수 없다.[44]

3) 圓光

『삼국사기』 열전에는 원광이 평생의 가르침을 묻는 貴山 등에게 이른바 世俗五戒를 말해주는 내용이

---

42) 『文選』 권第54, 五等論(陸士衡)

43) 『禮記』 권19 樂記, "地氣上齊 天氣下降 陰陽相摩 天地相蕩 鼓之以雷霆 奮之以風雨 動之以四時 煖之以日月 而百化興焉" 『문선』에도 보인다.

44) 권인한은 「봉평비」와 「진흥왕순수비」의 『論語』 구문을 근거로 6세기 초엽부터 『논어』의 직접 인용이 활발했다는 일반적 견해에 대해 당시 신라 사회에 『논어』의 실물이 유포되어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고, 해당 구문을 『논어』 외에 일부 史書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권인한, 2014, 앞의 논문, pp.33-37).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보인다. 이 중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은 유학의 기본 윤리인 五倫(五常)의 세 덕목을 차용한 것이다. 세속오계는 화랑의 규범으로 보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유학의 기본 윤리가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이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귀산 등이 화랑이라는 근거는 없고, 오계 또한 귀산 등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당대 최고 지식인으로서 원광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를 넘어 당시의 보편적 가치 체계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계의 세 조목 또한 원광의 유학 이해를 말할 수는 있어도 이를 전수받은 귀산, 또는 신라 사회의 유학 이해를 보증하지 않는다.[45]

『삼국유사』 인용 『古本殊異傳』에 수록된 「圓光法師傳」에는 그가 중국에서 11년을 머무르며 "三藏을 널리 통달하고 儒術을 함께 배웠다[博通三藏 兼學儒術]"라고 설명하고 있다. 승려로서 불교를 배우는 한편에서 자연스럽게 儒術을 습득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는 문장이 뛰어났던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乞師表」에 대해 "황제거 그것을 보고 30만의 병력으로 高麗를 親征했으니 이로부터 法師가 儒術에 널리 통달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평가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그의 유학 이해를 강조한 초점은 문장력을 드러내는 데 있었던 것이다.[46] 유학적 소양과 문장력의 관계는 강수의 전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진흥왕 순수비」의 문장을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승려의 행적도 이와 유사했을 것이다.

이처럼 유학승들은 중국에서 불교를 배우기 위해 필수적으로 어학과 문장을 학습하면서 자연히 유학 지식도 습득하였고, 유학 지식인층이 형성되지 않은 신라에서는 그들의 문장력이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여기서 유학은 근본적으로 문장 구사를 위한 기능적 속성을 가진다. 원광의 '儒術' 습득이 결국 탁월한 문장 구사로 귀결되는 것에서 그 맥락을 알 수 있다.[47] 이러한 승려들의 역할이 초기 유학 이해의 토대가 되었을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신라에서 유학 경전의 보급이나 이해의 결과로 나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광 등 유학승들의 행적을 통해 당시 신라의 유학 이해를 가늠할 수는 없다.

45) 『삼국사기』가 崔致遠의 「鸞郎碑」를 통해 風流(화랑)에 담긴 三敎를 설명한 것을 감안할 때, 세속오계가 화랑의 이념이었다면 당연히 儒·佛의 요소를 공유한 오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삼국사기』에서도 인지되었을 법하다. 또한 『삼국유사』는 화랑에 대해 "使人悛惡更善 上敬下順 五常六藝 三師六正 廣行於代"라고 의미를 평가했지만, 역시 세속오계와의 연관성은 적시하지 않았다. 결국 세속오계와 화랑의 관계는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전제로 당시의 역사상을 구성할 수는 없다.

46) 『삼국유사』 인용 『續高僧傳』에는 그에 대해 "校獵玄儒 討讎子史 文華騰藹於韓服 博贍猶愧於中原"이라고 평가한 내용이 보인다. 이 구문은 그가 25세에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나온다. 이에 근거하여 儒經과 史書의 유통을 상정하는 견해도 있다(권인한, 2015, 앞의 논문, p.37). 그러나 이 구문은 그의 뛰어난 문장력의 근거를 소급 해석한 것으로서 傳記 자료의 수사적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그가 유경과 자사를 섭렵해서 문장이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그의 문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서 처음부터 유경과 자사를 섭렵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25세 이전에 이미 출가했을 그가 "校獵玄儒 討讎子史"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47) 원광의 사례는 관료의 유학 수준이 높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목되기도 한다(고경석, 1997, 「신라 관인선발제도의 변화」, 『역사와현실』 23, p.96).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4) 金后稷

김후직은 지증왕의 증손으로서 580년(진평 2)에 伊湌으로 兵部令이 되었다.[48] 그는 진평왕이 田獵에 빠진 것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老子』에 이르기를, "말을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馳騁田獵 令人心狂]"라고 하였고, 『書經』에 이르기를, "안은 色으로 인해 황폐해지고 밖은 금수로 인해 황폐해지니 한번 이에 빠지면 망하지 않은 것이 없다[內作色荒 外作禽荒 有一于此 未或不亡]"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안으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밖으로는 나라를 망하게 아니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49]

위에서 김후직은 『老子(道德經)』와 『書經』의 구문을 인용하며 사냥에 빠지면 안된다고 諫하였다. 이로 보면 진평왕대 이전에 김후직이 『노자』와 『서경』을 읽고 그 내용을 정치에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신라에서 유학 경전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진전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가 될 수 있다.[50] 특히 왕의 권위나 역할 행동을 표현하는 수사가 아니라 신하가 왕의 행동을 제어하는 諫言이라는 점에서 정치 이념으로의 면모 또한 뚜렷하다.

그러나 이 기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전기 자료에서 흔히 발견되듯이 후대의 시각에서 김후직의 행적을 가공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지적되는 것은 『老子』의 이해이다. 643년 고구려 淵蓋蘇文은 三敎 중에서 道敎만 번성하지 않고 있다며 당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할 것을 건의하였다. 고구려의 요청에 당 태종이 道士를 보내고 아울러 『道德經』을 내려주었다고 한다.[51]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다. 신라는 법흥왕의 공인 후 진흥왕 때 황룡사를 창건하고 불교를 적극 장려하였다. 고구려에서도 도교가 번창하지 않았고 7세기 중반에 비로소 『도덕경』이 도입되었는데, 신라가 이보다 수십 년 이상 앞서서 그 내용을 정치에 활용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여기서 김후직의 고사가 후대에 가공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그 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발견된다.

> 신이 또 듣건대 "말을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馳騁畋獵 令人發狂]"라고 했습니다. 지금 貴戚이 打球하고 擊鼓하며 매를 날리고 개를 풀고 간사한 사함을 가까이 하며 藪澤을 돌아다닙니다. 『尙書』에 이르기를, "인은 色으로 인해 황폐해지고 밖은 금수로 인해 황폐해진다[內作色荒 外作禽荒]"라고 했습니다. 폐하께서 誕降하여 가르침을

48)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2년, "以伊湌后稷爲兵部令"

49) 『三國史記』 권45, 列傳5 金后稷, "老子曰 馳騁田獵 令人心狂 書曰 內作色荒 外作禽荒 有一于此 未或不亡 由是觀之 內則蕩心 外則亡國 不可不省也"

50) 노중국, 2008, 앞의 논문, p.22.

51) 『三國史記』 권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2년 3월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꾀하며 학업을 권장하시니 好惡로 보이시고 成敗로 베푸시면 길이 복록을 누릴 것입니다.[52]

위 기사는『舊唐書』柳澤 열전의 것이다. 유택은 사냥을 경계하면서 김후직과 동일하게 두 경전의 구문을 인용하고 있다.『文選』의 長楊賦(楊子雲)에는 "此則老氏所誡 君子不爲"라는 구문에 대해 "老子曰 馳騁畋獵 令人心發狂"이라고 설명을 붙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후직의 간언은 실제 그가 제시한 내용이 아니라 그의 忠諫을 부각시키기 위해 후대에 수사적으로 차용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그의 전기는 兵部令 임용 기사 외에는 진평왕의 사냥을 만류하는 충간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죽으면서도 왕을 걱정했던 그의 이야기를 들은 진평왕은 "夫子忠諫 死而不忘"이라 하였다고 한다. 유택 열전에 보이는『도덕경』과『서경』의 구문은 그의 간언을 더욱 설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차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진평왕 초기의 유학 이해를 말할 수 없다.[53]

비슷한 사례로 强首 열전을 보면, 그가 대장장이의 딸과 혼인하는 것을 부모가 반대하자 "糟糠之妻不下堂 貧賤之交不可忘"이라며 결혼을 강행한 내용이 보인다. 이 구문은『後漢書』에 처음 나온다. 이에 그가『후한서』를 읽었음은 물론, 三史를 구성하는『史記』와『漢書』도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견해가 있다.[54] 이는 고구려와 백제에서 三史 학습이 있었음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 불교의 유입도 늦었던 신라가 유학을 고구려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용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강수가 처음에『문선』과『효경』등을 학습한 것을 고려하면, 결혼 당시 20세였던 강수가 이전에 이미『후한서』를 읽고 그 내용을 활용할 정도로 익혔다는 설명은 현실성이 없다.

후대 사례를 보면 이 구문은 굳이 그 출전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것이다. 또한 전기에 등장하는 일화의 내용이 당시에 실제 구사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는 김후직의 사례처럼 강수의 부부 의리를 부각시키기 위해 전기의 찬자가 찬술 당시의 인식에 의해 구성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朴堤上(金堤上)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三國遺事』수록 기사를 보면 그는 "主憂臣辱 主辱臣死"라며 위험한 使行을 수락하였다.[55] 이 구문은『史記』에 보이며,『文選』에도 등장한다. 그러나 박제

52)『舊唐書』권77, 列傳27 柳澤, "臣又聞 馳騁畋獵 令人發狂 今貴戚打球擊鼓 飛鷹奔犬 狎比宵人 盤遊藪澤 書曰 內作色荒 外作禽荒 惟陛下誕降謀訓 勸以學業 示之以好惡 陳之以成敗 則長享福祿矣"

53) 이밖에 金庾信이 임종에 앞서 문무왕에게 올린 獻議에는『書經』의 구문을 차용한 "任之勿貳"와 君子·小人의 分辨이 제시되어 있어 뚜렷한 유교정치이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魏徵의 遺表를 차용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실제 김유신이 그러한 유학적 지식을 가지고 말했다고 볼 수 없다(윤경진, 2016,「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에 대한 재론: 근거 자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韓國史硏究』175).

54) 김영하, 2005, 앞의 논문, p.147.

55)『三國遺事』권1, 紀異1 奈勿王 金堤上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상이 실체 『史記』를 읽고 이 구문을 구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후대의 경전 유통에 비추어 이른 시기에 중국 사서가 도입되고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訥祇麻立干을 訥祇王으로 적은 데서 드러나듯이 후대에 찬술된 것이다. 전기의 찬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행에 나서는 그의 행적을 묘사하기 위해 해당 구문을 차용하여 넣은 것이다. 따라서 이 기사는 박제상 활동기의 유학 이해를 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상에서 그동안 신라 중고기 유학 이해의 지표로 제시되었던 주요 사례들을 검토해 보았다. 「진흥왕 순수비」나 원광의 활동은 초기 유학승들이 문장 학습 과정에서 함께 습득한 유학적 요소들을 국왕과 관련된 문장에 활용한 차원을 넘기 어렵다. 강수는 전문적인 문장가가 배출되는 초기 양상으로서 그가 학습한 경전은 기본적으로 문장을 위한 것이었다. 김후직의 사례는 가장 뚜렷한 유학 이해의 내용을 보여주지만, 이는 그의 忠諫을 부각시키기 위해 후대에 중국 사서에 보이는 사적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신라 중고기의 유학 이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신라의 교육체계와 유학

유학 경전을 학습하는 주된 목적은 그것에 담신 이념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유학을 장려하고 교육을 통해 경전 내용을 습득한 인재들을 관리로 임용한다. 유학은 처음부터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유학의 수용과 이해는 그 자체로 체제적인 속성을 띠었고, 교육 및 관리 임용 체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遊學僧의 개별적인 공부나 문장 활용을 위해 수사적으로 활용되는 수준에서는 이러한 체제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강수가 『문선』 등을 학습한 이유도 문장가가 되어 출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임신서기석」에서 두 청년이 경전의 학습을 다짐하는 근본적인 목적 또한 출사하는 데 있었을 것이다. 이들이 忠道를 執持한다는 것도 결국 출사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는 언제부터 유학 경전을 수용하고 교육에 활용하게 된 것일까. 이것은 물론 신문왕 때의 국학 설치를 통해 확정되었다.[56] 하지만 이에 앞서 유학 경전이 들어오고 문장이 활용된 만큼 이것이 체계적인 교육으로 이어지는 전기 내지 과정이 상정된다. 기존에 신라가 5~6세기에 이미 유학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입론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 체계도 상정하고 있는데, 花郎이 대표적이다.[57]

현재 화랑이 교육 체계로서 기능한 측면이 있음은 통설이 되어 있지만,[58] 실제 관련 기사에서 교육과

56) 玄相允, 1947, 『朝鮮儒學史』, 民衆書館, p.13.

57) 이기백은 접촉이 곧 수용을 의미할 수는 없으며 일정한 사회적 기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서 그 지표를 학교에서 찾았다. 다만 그는 화랑도 같은 조직이 유교적 정신을 받들었다면 이 또한 고려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라의 유교 수용 시기를 중고기로 설정하였다(李基白, 1973, 「儒敎 受容의 初期形態」, 『韓國民族思想史大系』 2; 1986,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pp.194-195).

58) 화랑도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는 朱甫暾, 1997, 「新羅 花郎徒 研究의 現況과 課題」, 『啓明史學』 8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직접 관련된 지표는 찾을 수 없다. 화랑 설치에 대한『삼국사기』기사를 보자.

> 다시 미모의 남자를 취하여 장식하고 花郎이라 이름하며 받들었다. 무리가 운집하니 혹은 道義로 서로 격려하며 혹은 歌樂으로 서로 즐기면서 山水를 돌아다니며 노는데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해 그 사람의 邪正을 알고 그 중 좋은 사람을 택하여 조정에 천거하였다.[59]

주지하듯이 신라의 화랑은 본래 源花에서 시작되었다. 원화의 설치 목적은 "君臣이 사람을 알아볼 방법이 없음을 문제로 여겨 무리들이 모여 놀게 하면서[群遊] 義를 행하는 것[行義]을 살핀 연후에 천거하여 쓰고자 하였다"[60]라는 것이었다. 곧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서 '群遊'를 통해 '行義'를 관찰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화랑은 무리의 구심점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었을 뿐, 인재 선발이라는 근본 목적에서는 원화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61] 교육 기능은 교육 체계가 관리 선발과 직결되었다는 인식에 따라 유추된 것에 가깝다.

또한 이 기사에 제시된 "道義"를 유학적 이념의 반영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이는 실제 화랑 창설 당시에 수립된 개념이 아니라 화랑의 운영에 대한 후대의 표현이다. 이는 같은 내용이 金歆運 열전의 論에서 나타나는 것에서 뒷받침된다. 곧 무리 내부에 형성되는 상호 관계와 집단의 유지를 위한 규범을 후대의 가치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구문은 "相悅以歌樂"과 대구를 이루면서 邪正 판별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술한 관창의 사례에서 화랑의 무예 연마가 제시되는 데 근거해 보면, "相磨以道義"로 표현된 화랑의 내부 관계는 무예를 매개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당대의 유학적 가치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師弟 관계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과의 관련성도 현재로서는 상정하기 곤란하다.

『三國遺事』에는 原花(源花)의 설치 목적을 "聚徒選士"라고 제시하면서 아울러 "敎之以孝悌忠信 亦理國之大要也"라고 설명하였다.[62] 이에 따르면 원화 단계에서 이미 유교적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원화 설치 당시의 운영 내용이 아니라 관리에게 요구되는 국가 의식을 후대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다. 원화나 화랑의 목적인 選士의 기준을 후대의 관리 선발과 같은 맥락에서 소급 설명한 것으로서 "理國之大要"라는 표현에서 그 의미가 유추된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원화의 교육 가능이나 유학적 가치를 설명하기 어렵다.

---

59)『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眞興王 37년, "更取美貌男子 粧飾之 名花郎以奉之 徒衆雲集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因此知其人邪正 擇其善者 薦之於朝"

60)『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眞興王 37년, "君臣病無以知人 欲使類聚群遊 以觀其行義 然後擧而用之"

61) 고경석, 1997, 앞의 논문, p.84.

62)『三國遺事』권3, 塔像 彌勒仙花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교육이나 유학과 관련된 화랑도의 이미지는 세속오계와 더불어 고구려의 扃堂을 통해 유도된 측면도 있다.[63] 『舊唐書』에는 고구려의 풍속이 책을 좋아하고, 경당에서 독서와 習射를 했으며, 그 책에 五經 등이 있다고 소개하였다.[64] 이것이 어느 시기의 사정을 담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사에서 제시한 "독서의 일반화"를 太學 설치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신라는 해당 史書에 독서와 관련된 기록이 없고, 국학은 신문왕 때 비로소 설치되었다. 이들이 청년조직으로서의 유래가 상통한다 하더라도 유학 및 교육에 있어 양자의 차이는 엄존한다. 적어도 청년조직이라는 것만으로 경당을 통해 화랑도의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한편 화랑도의 성격과 관련하여 짚어볼 또 다른 사항은 崔致遠의 서술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최치원은 「鸞郎碑」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으니 風流라 한다. 가르침을 베푼 연원은 仙史에 자세하다. 실로 三敎를 포함하며 群生을 접하여 교화한다. 또한 들어와 집에서 효도하고 나가서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魯司寇의 요지이며(儒), 無爲의 일에 처하고 不言의 敎를 행하는 것은 周柱史의 종지이며(道), 惡을 행하지 않고 善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竺乾太子의 교화이다(佛).[65]

위의 기사는 신라의 風流, 곧 화랑도에 儒敎, 道敎, 佛敎의 三敎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풍류가 群生을 接化한다는 설명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풍류의 三敎 포함이 신라 말 최치원의 평가일 뿐, 실제 그것이 화랑의 창설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풍류의 운영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치를 삼교의 일반적 이념에 의도적으로 맞추어 설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 家長과 가족 구성원 사이의 권위-복종 관계는 모든 사회에 일반적인 것이고, 국가 권력의 형성과 함께 그에 대한 구성원의 복종 또한 보편적이다. 이것은 한문 이해와 더불어 '孝'와 '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忠孝로 지칭되는 가치를 설정한다고 해서 그 가치 자체가 곧바로 유교 이념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善惡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선악 구분과 선택 행동은 특정 종교나 사상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사회 윤리이다. 불교는 선악의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곧 輪廻와 業報에서 그 특징이 나타난다. 선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상이나 종교와 구분되는 불교의 특성을 제시할 수 없다. 『周易』에 보이는 "積善之家 必有餘慶"처럼 유학 이념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제시된다.

---

63) 이기백, 1986, 앞의 책, pp.198-199.

64) 『舊唐書』 권199, 列傳149 東夷 高麗, "俗愛書籍 至於衡門廝養之家 各於街衢造大屋 謂之扃堂 子弟未婚之前 晝夜於此讀書習射 其書有五經及史記漢書范曄后漢書三國志孫盛晉春秋玉篇字統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

65)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37년,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敎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敎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최치원의 설명은 신라 말에 삼교의 융합이라는 가치 지향이 나타났다는 설명의 준거는 될 수 있지만, 화랑도가 당초 삼교를 포함한 가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화랑도가 유학 이해와 교육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없음도 명백하다.

실질적으로 신라에서 유학 학습과 연계된 교육이 모색되는 전기로 평가되는 것은 640년(선덕 9) 唐에 자제를 보내 국학 입학을 요청한 것이다.[66] 다만 이어진 설명을 보면 이 때의 조치는 신라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장려한 당 태종의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곧 태종이 "天下名儒"를 모으는 데 부응하여 고구려와 백제, 高昌 등이 자제를 보내자 신라도 그에 참여한 것이다.[67]

설명의 원전인『資治通鑑』기사를 보면, 당시 태종이 國子監에 갔을 때 孔穎達에게『孝經』을 강론하도록 한 것으로 나온다.[68] 또한 공영달은 태종의 명을 받아『五經正義』를 찬술하게 된다. 이에 당시 행사를 통해 유학 경전이 본격적으로 신라에 유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짐작된다. 당과 적극적인 외교를 모색하던 신라는 국가 기관을 통한 유학 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음에 648년(진덕 2) 金春秋가 당에 사신으로 갔을 때 國學을 견학한 점이 주목된다. 국학 견학이 왕명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김춘추의 개인적 활동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가 파견된 주된 목적은 군사를 청하는 데 있었지만, 한편으로 당에 대한 사대를 본격화하며 衣冠制度의 도입을 도모하였다. 앞서 당 태종의 정책에 부응하여 자제의 입학을 요청한 만큼, 김춘추의 국학 견학 또한 사행 목적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신라의 유학 이해를 가속시켰을 것이다.[69]

이후 신라는 당에 자제를 보내 宿衛케 한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70] 첫 사례는 651년 入唐하여 조공한 후 그대로 남아 숙위한 金仁問이다.[71] 열전 기록에는 왕명에 의해 입당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 이 조치가 당의 교육 체계를 수용하는 토대가 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72] 입당 숙위생들은 대개 入學하여 공부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德福이 曆術을 널리 배워 온 것은[73] 그 사례이다. 이들이 682년(신문 2) 국학을 설치하는 인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강수 열전 말미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발견된다.

---

66)『三國史記』권5, 新羅本紀5 善德王 9년 5월, "王遣子弟於唐 請入國學"

67)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에는 모두 640년 2월에 자제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라본기에는 동년 5월 기사로 나온다. 세 본기의 구문은 "遣子弟於唐 請入國學"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모두『資治通鑑』에서 가져온 기사로 짐작되는데, 신라만 5월로 적은 것은 誤記인지 아니면 5월로 정리된 별도의 신라 기록을 채용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68)『資治通鑑』권195, 太宗 貞觀 14년 2월丁丑, "上幸國子監 觀釋奠 命祭酒孔穎達講孝經"

69) 김영하, 2005, 앞의 논문, pp.145-1463.

70) 신라 宿衛學生의 역사적 추이에 대해서는 申瀅植, 1969,「宿衛學生考」,『歷史敎育』11·12합 참조.

71)『三國史記』권5, 新羅本紀5 眞德王 5년 2월, "遣波珍飡金仁問 入唐朝貢 仍留宿衛"

72) 648년 김춘추의 入唐 기사에는 그가 "臣有七子 願使不離聖明宿衛"라고 요청하면서 함께 간 아들 文王에게 명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보면 문왕이 그대로 체류했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체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 그가 還國하는 기사도 나타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3년 뒤 김인문이 입당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실질적인 첫 사례일 듯하다. 또한 그가 왕명으로 간 것은 앞서 김춘추의 요청이 신라의 공식적 조치임을 시사한다.

73)『三國史記』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4년 정월, "入唐宿衛大奈麻德福 傳學曆術還 改用新曆法"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新羅古記』에 이르기를, "문장은 强首, 帝文, 守眞, 良圖, 風訓, 骨番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문 이하는 사적이 산일되어 立傳하지 못했다.[74]

위에서 언급한 『新羅古記』가 어떤 책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문장에 관련된 여러 인물을 열거한 것을 보면, 일종의 傳記 자료로 추정할 수 있다. 강수는 이 자료에서 정리한 신라 문장가 중의 한 사람인데 유일하게 내용이 남아 있어 입전될 수 있었다. 나머지 인물은 卷首의 목록에서 확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열거된 인물 중 良圖는 김인문 전기 말미에 "良圖海飡 六入唐"이라고 되어 있어 그가 여러 차례 당에 다녀온 것을 알 수 있다. 김인문은 7차례 입당했는데,[75] 이는 그가 숙위 학생으로 경험을 쌓은 것이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양도 또한 처음에는 숙위 학생으로 입당하였고, 이후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 차례 사행을 간 것으로 이해된다. 風訓은 675년 기사에 宿衛學生이었다는 내용이 보인다.[76]

양도나 풍훈이 문장으로 명성을 얻는 데에는 입당하여 국학에서 경전을 학습한 것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강수는 국내에서 학습한 경우로서 문장가의 초기 사례에 해당한다. 이후 배출된 유학생들은 중국에서 경전을 정식으로 배웠으며, 이를 통해 문장과 더불어 유학에 대한 이해도 진전되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라는 국내에서 교육을 행하기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고, 이후 신라의 유학 이해도 본격화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는 「임신서기석」의 제작 시기를 새롭게 파악하고, 신라 중고기의 유학 이해에 대해 검증하였다. 주 논점은 이 비가 8세기 이후에 제작되었으며, 신라 중고기의 유학 이해 또한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토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임신서기석」의 제작 시기는 552년, 또는 612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맹서의 주인공을 화랑으로 보고 화랑의 활약기에 비가 제작되었다는 견해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비의 제작 시기는 비문 중 "若國不安大亂"이라는 구문에서 도출된다. '만약'이라는 가정에 비추어 당시가 '불안'이나 '대란'의 상황이 아니며, 이는 이 비가 전쟁기인 6~7세기에 제작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신라는 6세기 중반 이후 전시체제로 들어갔고 이는 나당전쟁이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611년 김유신이 수련에 들어가며 당시를 "略無寧歲", "志淸禍亂"로 표현한 것은 '不安'과 '大亂'이 현실 상황임을 보여준다.

74) 『三國史記』 권46, 列傳6 强首, "新羅古記曰 文章則强首帝文守眞良圖風訓骨番 帝文已下事逸 不得立傳"
75) 『三國史記』 권44, 列傳4 金仁問 "仁問七入大唐 在朝宿衛 計月日凡二十二年 時亦有良圖海飡 六入唐"
76)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5년 9월, "薛仁貴以宿衛學生風訓之父金眞珠伏誅於本國 引風訓爲鄕導 來攻泉城"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유학 경전의 학습은 관리로 출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학의 설치와 독서삼품과는 그러한 체계를 보여주며, 비문의 주인공 또한 출사를 위해 경전 학습을 다짐한 것이다. 그런데 7세기 화랑의 사례를 보면 대개 무예가 중시되었고 경전 학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김수가 자신의 진로를 儒로 선택하고 경전을 학습한 것은 '문장'을 위한 것이었다. 그가 배운 『孝經』·『曲禮』는 기초 교양이고 『爾雅』·『文選』은 문장 학습용이다. 이는 비문 및 國學의 敎授之法에 보이는 경전과 층위가 다르다. 원성왕 때 제정된 讀書三品科는 기존에 무예 중심으로 관리를 선발하던 것을 문장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이에 비추어 「임신서기석」의 제작 시기는 독서삼품과 시행 이후인 792년이나 852년으로 비정된다.

漢代 이후 유학 경전은 이념과 문장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삼국이 구사하는 문장에는 처음부터 유학적 요소가 내재해 있었다. 경전 이해에 앞서 경전에서 차용된 특정 구문을 구사할 수 있는 바, 이를 그대로 유학 이해의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

「봉평비」의 博士는 立石碑人에 해당하므로 유학 지식인으로 볼 수 없다. "獲罪於天"은 『논어』에 나오지만 "하늘의 벌을 받는다"는 한자의 일반적 의미로도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전 이해의 준거로 삼기 어렵다.

「진흥왕순수비」에도 "修己"를 비롯해 유교적 색채가 짙은 표현들이 발견된다. 이 비문의 찬자는 승려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중국에서 불교를 배우면서 문장도 함께 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학적 소양도 습득하였고 이것이 비문에 투영된 것이다. 신라가 중시한 『문선』에는 다양한 구문의 출전으로서 경전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바, 실제 경전을 학습하지 않고서도 특정 구문을 활용할 수 있다.

圓光의 세속오계는 유교의 기본 윤리인 忠·孝·信을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계를 전부받은 貴山 등이 화랑이라는 근거가 없고,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어서 일반화할 수도 없다. 또한 원광의 유학 지식이 당대의 보편적 이념을 반영한 것도 아니다. 遊學僧들의 유학 지식은 문장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동시대 유학 이해의 직접적인 지표가 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强首의 사례는 유학승이 담당하던 문장을 전문가가 담당하게 되는 변화를 보여준다. 그는 외교 문서에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중에는 유학 경전에서 차용된 것들도 있었다. 그에 대한 평가에는 신라의 전쟁에서 '武'와 더불어 '文'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삼국사기』 편집자의 시각도 투영되어 있다.

金后稷은 사냥에 빠진 진평왕에게 『노자(도덕경)』와 『서경』의 구절을 인용하며 간언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고구려에 도교가 본격 유입된 것보다 앞선다. 더구나 두 경전을 활용한 사냥 만류는 『舊唐書』 柳澤 열전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강지처에 대한 의리를 말한 강수의 사례나 군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말한 박제상의 사례는 모두 전기가 찬술된 시기에 구사된 내용으로 파악된다.

유학 수용과 함께 국가는 교육 기관을 통해 경전을 학습한 인재를 관리로 임용했기 때문에 유학 이해는 교육 및 관리 임용 체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신라의 교육 체계는 신문왕 때 국학 설치로 성립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지만, 그에 앞서 교육을 통한 경전 학습을 도모하는 전기가 상정된다.

중고기의 교육 체계로서 이해되고 있는 화랑은 집단 활동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는 방안으로서 일반적 의미의 교육과 거리가 있다. 또한 "相磨以道義"는 화랑의 운영에 대한 후대의 표현이므로 화랑의 사상적 기반을 말할 수 없다. 최치원이 「鸞郎碑」의 서문에서 風流가 三敎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 것 또한 신라 말의 시각에서 화랑도를 설명한 것으로서 풍류의 내용 중에서 儒·佛·道와 각각 연결할 수 있는 지표를 찾아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신라의 유학 교육은 640년 唐에 자제를 보내 국학 입학을 요청한 것을 전기로 한다. 이는 외교 의례의 성격이 강했지만, 국가 기관을 통한 유학 교육을 접했다는 점에서 이후 유학 교육의 단서를 제공하였다. 진덕왕 때 김춘추가 국학을 견학한 것은 그 추세를 가속시켰다.

이후 신라는 당에 자제를 보내 宿衛케 하였는데, 첫 사례는 651년 왕명으로 入唐한 金仁問이다. 강수 열전 말미에는 『新羅古記』를 인용하여 강수를 포함한 다수의 문장가를 열거한 기사가 있다. 이 중 良圖와 風訓은 모두 입당 사적이 확인된다. 이들이 문장가로 명성을 얻는 데에는 당의 국학에서 경전을 학습한 것이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이들이 신라의 국학 설치에 인적 기반이 되었다. 「임신서기석」은 이후 신라에서 유학 경전이 충분히 보급되고 교육과 관리 선발에 활용되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처럼 신라 중고기의 유학 이해는 문장 학습과 활용에 투영된 수준을 넘기 어렵다. 신라의 유학 이해는 국학 설치를 전후하여 본격화되며, 이후 유학에 입각한 국가 운영과 이념적 활용이 모색되었다. 이것은 유학 교육과 연계된 관리 선발과 더불어 종묘를 비롯한 국가 의례의 정비, 그리고 유교 정치 이념의 확산 등으로 표출되었다. 그 구체적인 양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삼는다.

투고일: 2019. 4. 26. 심사개시일: 2019. 5. 09. 심사완료일: 2019. 5. 17.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참/고/문/헌

1. 자료

『三國史記』『三國遺事』『南齊書』『南史』『舊唐書』『資治通鑑』『禮記』『論語』『文選』

韓國古代社會硏究所 편, 1992, 『譯註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2. 연구 논저

고경석, 1997, 「신라 관인선발제도의 변화」, 『역사와현실』 23.

權仁瀚, 2015, 「출토 문자자료로 본 신라의 유교경전 문화」, 『口訣硏究』 35.

金德原, 2011, 「신라 國學의 설립과 그 주도세력」, 『震檀學報』 112.

金瑛河, 2005, 「新羅 中代의 儒學受容과 支配倫理」, 『韓國古代史硏究』 40.

김창호, 1984, 「壬申誓記石 製作의 年代와 階層」, 『加耶通信』 10; 2009, 『삼국시대 금석문 연구』, 서경문화사.

노중국, 2008, 「신라 中古期 儒學 사상의 수용과 확산」, 『大邱史學』 93.

朴漣洙, 1982, 「壬申誓記石에 관한 考察: 花郎의 '天' 및 '國家'觀」, 『陸士論文集』 23.

孫煥一, 2000, 「壬申誓記石의 書體考」, 『美術資料』 64.

손환일, 2017, 「한국 고대의 유교경전 기록과 목간(木簡)의 서체(書體)」, 『韓國思想과文化』 87.

申瀅植, 1969, 「宿衛學生考」, 『歷史敎育』 11·12합.

劉占鳳, 2011, 「신라와 당의 교육체제 비교: 中央官學을 중심으로」, 『大邱史學』 104 .

윤경진, 2016, 「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에 대한 재론: 근거 자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韓國史硏究』 175.

李基白, 1869, 「新羅統一期 및 高麗初期의 儒敎的 政治理念」, 『大東文化硏究』 6·7; 1986」, 『新羅思想史硏究』, 一潮閣.

李基白, 1969, 「强首와 그의 思想」, 『文化批評』 3; 1986, 『新羅思想史硏究』, 一潮閣.

李基白, 1973, 「儒敎 受容의 初期形態」, 『韓國民族思想史大系』 2; 1986, 『新羅思想史硏究』, 一潮閣.

이병도, 1957, 「壬申誓記石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논문집(인문사회과학)』 5; 1976,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李喜寬, 1998, 「新羅中代의 國學과 國學生: 『三國史記』38 國學條 學生關係規定의 再檢討」,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9.

장지훈, 2001, 「신라의 유교사상」, 『史叢』 54.

정구복, 2002, 「유학과 역사학」, 『(신편)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조남옥, 2014, 「신라 화랑도에 내재한 유교사상」, 『윤리교육연구』 35.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朱甫暾, 1997,「新羅 花郎徒 硏究의 現況과 課題」,『啓明史學』8.
최연식, 2016,「新羅의 變格漢文」,『木簡과文字』17.
한준수, 2014,「신라 중대 國學의 설치와 운용」,『韓國古代史探究』17.
玄相允, 1947,『朝鮮儒學史』, 民衆書館.
洪起子, 1998,「新羅下代 讀書三品科」,『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19.
홍순창, 1991,「신라 유교사상의 재조명」,『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12.
황의동, 2012,「국학(國學) 설립의 의의와 신라유학의 발전」,『韓國思想과文化』63.

大坂金次廊, 1967,「新羅花郎の誓記石」,『朝鮮學報』43.
末松保和, 1936,「慶州出土の壬申誓記石について」,『京城帝大史學會誌』10; 1954,「壬申誓記石」,『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田中俊明, 1983,「新羅の金石文: 壬申誓記石」,『韓國文化』6-7.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

〈Abstract〉

Time of Creation of the「Imshin Seogi-seok (壬申誓記石, Stone of Oath carved in the Imshin-year)」 inscription, and Confucianism in the Shilla dynasty's Middle-Ancient era

Yoon, Kyeong-jin

Newly estimated in this article is the date for the Imshin Seogi-seok inscription, which contains the students' oath to study Confucian classical texts diligently. The intention is to gain new understanding of the level of Confucian studies reached in the Middle-Ancient era of Shilla.

Until now, this monument was believed to have been erected when the Hwa'rang(花郎) figures were in operation. It was a general perception that the inscription would have been made in either 552 or 612. Yet the inscription itself does not reveal any reference to the Hwa'rang figures. Instead, the line which says "If the state is to be disrupted[不安] or rattled by upheavals[大亂]" insinuates the fact that the inscription was drafted actually during peace time when the state was quite stabilized.

The texts studied by Gang Su(强首) who served and operated as a literary figure for the government during the reign of king Mu'yeol-wang was Munseon(文選, generally consulted in writing practices) and Hyogyeong(孝經, generally read in acquiring basic Confucian morality). Studies of Classical texts including the Five Classics(五經) only began during king Weonseong-wang's reign when the Dokseo Sampum-gwa(讀書三品科) institution was launched for the first time.

The Shilla people's initial understanding of Confucianism was within the context of perceiving it as part of Chinese literature(漢文學). Buddhist priests used to go over to China to study classical writing, and absorbed Confucian understanding too in the process. Such efforts were to primarily learn advanced skills of writing, and did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y we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studies of Classical text, or achieved a certain level of understanding in Confucian teaching for that matter. Quotes from Classical texts we can find from「Jinheung-wang Sungsu-bi(眞興王巡狩碑)」were actually inserted there most dominantly to decorate the king's own leadership and authority. And many of the Confucian descriptions with regard to individuals who lived this period and included in their biographies[傳記] are most certainly added in subsequent periods when those biographies were actually written. The example of Kim Hu-jik(金后稷) which mentioned Noja(老子) and Seogyeong(書經) was modeled after Chinese historical details.

▶ Key words: Imshin Seogi-seok(壬申誓記石, Stone of Oath carved in the Imshin-year), Confucianism(儒學), Gang Su(强首), the Five Classics(五經), Munseon(文選, generally consulted in writing practices), Dokseo Sampum-gwa(讀書三品科), Kim Hu-jik(金后稷)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5 13:55(KST)